한화, 라이프 사업장에 AI·로봇 도입… 계열사 시너지 창출

그룹 인적분할·신설 지주사 앞둬
신시장 개척·외부 수익창출 목표

아워홈, AI 카메라로 위생·안전 점검
백화점·호텔선 매장 혼잡도 등 분석
비노봇·조리 로봇, F&B 매장 활용

조리 공간 내 이상 상황 등을 감지해 알려주는 AI 카메라.

소믈리에의 모션을 학습해 브리딩 하고 있는 로보틱스 협동로봇. /한화그룹

한화그룹이 테크(Tech)와 라이프(Life) 솔루션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에 나선다. 그룹의 인적분할과 신설 지주사 설립을 앞두고 계열사 간 기술·서비스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한화는 식품·유통·서비스 현장에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접목해 고객 편의와 안전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신시장을 개척해 외부 수익 창출까지 이어가겠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단체급식과 식자재 유통 사업을 하는 아워홈 사업장에는 AI 카메라가 시범 도입된다. 조리실에 설치된 AI 카메라는 조리사의 복장과 위생 수칙 준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이상 소리나 온도 변화를 감지해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식자재 공급 효율화를 위한 기술 도입도 추진된다. 바코드 인식과 영상 촬영 기능이 결합된 카메라가 식재료 입고 시 재고를 자동 등록하고, 인공지능이 재고 상황을 분석해 발주를 진행하는 지능형 자동 발주 시스템 개발이 진행된다. 또 AI 카메라로 급식 이용자의 메뉴 선호도를 분석해 식단을 개선하는 기능도 도입될 예정이다.

유통·호텔 등 라이프스타일 사업장에도 기술 적용이 확대된다. 백화점과 호텔·리조트에는 AI 카메라를 활용한 매장 혼잡도 분석과 고객 패턴 분석 시스템이 도입돼 운영 효율과 고객 편의를 높인다. 이상 상황이 감지되면 직원에게 즉시 알림을 보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또 협동로봇을 활용한 고객 서비스도 확대한다. 소믈리에 동작을 학습한 '비노봇(VINOBOT)'과 조리 로봇 등이 F&B 매장에서 활용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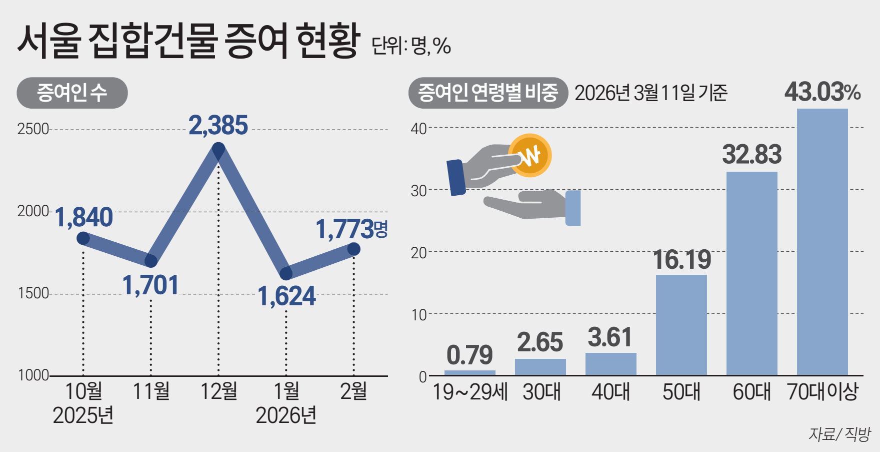
한화는 향후 인적분할이 마무리되면 별도의 시너지 전담 조직을 구성해 기술과 서비스 결합을 통한 신사업 발굴을 지속할 방침이다. 초기에는 그룹 라이프 사업장에 기술을 적용하고, 이후 이를 사업 모델로 발전시켜 외부 시장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한화 관계자는 "부문 간 시너지는 새 지주사가 추진하는 핵심 전략 중 하나"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협업을 통해 일상 속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서울 집 파느니 자식 준다"… 지난달 50·60대 증여 늘어

서울 증여인 1773명… 전월比 9.2%↑
전국적으로 고령층 중심 증여구조
자녀세대 주택 마련에 부모자금 활용



지난달 서울에서 주택 증여가 늘어난 가운데 증여자의 연령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자녀의 주택 구입 시기와 맞물려 증여도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16일 직방에 따르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증여인은 지난 2월 1773명으로 전월 대비 9.2%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지난달 40대 3.61%, 50대 16.19%, 60대 32.83%, 70대 이상 43.03% 등이다. 단일 연령대 기준으로는 여전히 7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가장 높지만 50대와 60대를 합한 비중은 49.02%로 70대 이상 비중을 웃돌았다.

특히 70대 이상 비중은 1월 49.26%에서 2월 43.03%로 낮아진 반면 50대 비중은 13.42%에서 16.19%로 확대됐다.

경기도 역시 50~60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증여인의 비중은 연령별로 40대 6.16%, 50대 17.86%, 60대 29.52%, 70대 이상 41.17%로 나타났다.

다만 전국적으로는 여전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증여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전국 증여인의 연령 비중은 40대 6.00%, 50대 14.73%, 60대 24.17%, 70대 이상 49.29%로 나타났다. 전체 증여의 절반가량이 여전히 70대 이상에서 발생했으며, 50~60대 비중을 합쳐도 70대 이상 비중에는 미치지 못했다.

직방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 간 증여 연령 구조 차이는 자녀의 주택 구입 시기와 맞물려 증여 시점을 앞당기는 움직임이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자녀 세대가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 자금이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난 점도 배경으로 지목된다"고 분석했다.

관계자는 또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 구입 시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자금의 규모가 제한되면서 필요한 자기자본 부담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며 "자녀의 주택 구입 과정에서 부모 세대가 자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흐름"이라고 전했다.

지방에서는 여전히 70대 이상 중심의 증여 구조가 뚜렷했다. 전라북도의 70대 이상 비중은 78.13%로 가장 높았으며, 전라남도 55.91%, 경상남도 55.78%, 충청남도 53.57%, 충청북도 52.78%, 강원특별자치도 51.54% 등으로 나타났다.

직방 관계자는 "다주택 보유 부담 확대에 대한 인식이나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 등 최근 시장 환경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보유 자산을 미리 정리하거나 자산 이전 시점을 앞당겨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도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metro

삼성SDI·LG엔솔, 매출 줄어도 차세대 배터리 R&D 집중

삼성SDI·LG엔솔 1.4조·1.3조 투입
中 CATL 4.7조… 양사 2배 규모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가 작년에 매출둔화 속에서도 1조4000억원 안팎의 연구개발(R&D)비를 각자 쏟아부으며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에 집중했다. 그러나 글로벌 배터리업계 1위인 CATL이 지난해 5조원 가까운 자금을 R&D에 투자하는 등 중국업계의 미래기술 선점투자도 가속화하고 있어 양국 주요 기업간 배터리 전쟁은 AI의 본격 활용과 함께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의 2025년 연구개발(R&D) 비는 1조4209억원으로 전년(1조2976억원)보다 9.5% 증가했다. 매출 대비 비중은 10.7%를 기록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지난해 R&D 비용은 1조3278억원으로 전년(1조882억원) 대비 약 22% 늘었다. 매출 대비 연구개발 비중은 5.6% 수준이다. 두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합치면 2조7487억원에 달한다.

인터배터리 2026에 마련된 삼성SDI '피지컬 AI'용 전고체 배터리 샘플. /원관희 기자

CATL은 2025년 연구개발에 국내 두 회사의 개발비보다 2배가까운 221억 위안(약 4조7700억원)을 투입했다. 지난 10년간 누적 연구개발 투자액도 900억 위안(약 19조4400억원)을 넘어섰다. 이 같은 공격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생산 확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지배력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는 39.2% 점유율로 9년 연속 1위를 유지했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분야에서도 30.4%로 5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리튬이온 배터리 판매량도 661GWh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CATL은 나트륨이온 배터리 상용화와 함께 전고체 배터리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차세대 전지 기술 확보에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CATL이 생산 규모와 가격 경쟁력, 공급망 생태계를 기반으로 당분간 우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전고체전지 등 차세대 기술 상용화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SDI는 고에너지밀도 각형 전지와 전고체 배터리를 중심으로 차세대 전지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46파이 원통형 전지와 ESS용 고출력 모듈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구축해 시제품 개발과 고객사 검증을 진행 중이며 2027년 양산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전고체전지와 바이폴라전지, 소듐전지 등 차세대 전지 기술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 리튬망간리치(LMR) 배터리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 다양한 차세대 기술 개발도 병행하고 있으며 배터리 성능과 수명 예측 모델링, CTP(Cell-to-Pack) 기술 등 시스템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두 기업 모두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AI) 활용도 확대하고 있다. 소재 탐색부터 셀 설계와 성능 평가까지 연구개발 전 과정에 데이터 기반 분석과 자동화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AI 기반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면 기술 개발 속도를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며 "기술 축적과 연구개발 가속을 동시에 추진해 배터리 산업에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metro

›› 1면 '삼성SDI, 1.5조 ESS…'서 계속

각형 배터리 기술 기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대

이번 계약까지 더해지면서 미국 ESS 시장에서 공급 실적을 지속적으로 쌓는 동시에 향후 실적 개선의 기반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SDI는 올해 초에도 미국에서 대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다수의 글로벌 고객사와 추가 공급 계약을 협의 중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삼성SDI가 각형(프리즘스택) 배터리 기술을 기반으로 ESS 공급 계약을 잇따라 확보하면서 향후 국내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과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SDI는 북미 지역에서 비중국계 가운데 유일하게 ESS용 각형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로 파우치형 대비 내구성이 높은 각형 구조와 화재 안전성 기술, 신뢰성을 바탕으로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원관희 기자